선악에 대한 니체의 질문

양운덕

*선한gut과 악한böse의 쌍/좋은-우월한gut과 나쁜/열등한schlecht의 쌍

니체는『도덕의 계보』(첫 번째 논문)에서 도덕의 기원을 분석하면서 '선한(gut)'과 '악한(böse)'의 쌍, '좋은/우월한(gut)'과 '나쁜/열등한(schlecht)'의 쌍을 구별한다. 전자는 노예 도덕이, 후자는 주인 도덕이 가치 평가의 척도로 삼는 것이다.[1)]

주인 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Ja-sagen zu sich selber)에서 비롯된다. 이와 달리 노예 도덕은 타자, 자기 아닌 것을 부정함으로써 시작한다. 니체는 이런 부정을 통한 긍정을 노예 도덕의 창안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가치를 평가하는 시선을 역전시킨다.(Nietzsche, 1887, 284-5)[2)]

이처럼 노예 도덕은 대립적인 바깥을 전제해서 반작용(Reaktion)하는 방식을 취한다. 원한을 지닌 인간은 먼저 나쁜 적, 악인을 마음속에서 구상하고, 이것의 대립항을 선인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창조적'으로 선과 악을 고안하는 방식이다.

물론 고귀한 인간은 좋은(gut)이란 기본개념을 자발적으로, 자기로부터 구상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쁜(schlecht)이라는 표상을 만든다. 니체는 귀족적 기원을 지닌 '나쁜(schle

---

1) 니체는 도덕사가들이 비역사적으로 비 이기적인 행위가 유용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본 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태도는 마치 그 행위 자체가 좋은 것인 것처럼 여기고 유용성, 망각, 습관, 오류 등을 기초로 삼는다.

그런데 '좋음'이란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고귀하고, 강하고, 드높은 사람들 자신에게 있다. 이들은 저속하고, 비천하고, 비속하고, 천민적인 사람들에게 맞서서 자기 행위를 좋은 것으로 느끼고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누가 가치를 평가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될 것이다.)

고귀한 자들은 '거리 두기의 파토스Pathos der (Vornehmheit und) Distanz'를 지니고, 유용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가치등급을 나름대로 정한다. 그래서 고귀한 지배자 종족이 천한 하층민Unten에 대해서 지니는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근본) 감정이 '좋은/우월한gut'과 '나쁜/열등한schlecht'이란 대립의 기원이다.

'좋음'은 비 이기적인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귀족적 가치판단이 몰락할 때, 이기적/비 이기적이란 대립이 인간의 양심을 강하게 압박한다. 이 대립은 '떼거리 본능Herdeninstinkt'을 표현한다. 유럽에서 도덕적, 비 이기적, 공평무사한desinteresse이 같은 의미로 보여 고정관념이 되었다. (1-2절)

그가 볼 때 '좋음'은 어느 언어에서나 신분상의 귀족적인, 고귀한 이란 기본개념이 있으며, 그로부터 '정신적으로 고귀한', '정신적으로 특권을 지닌'이란 의미로 gut개념이 발전한다. 이와 평행하여 비속한, 천민적인, 나쁜/열등한 schlecht이란 개념이 짝을 이룬다. schlecht는 소박한schlicht과 같은데 이는 (귀족에 대한) 평민을 의미한다.

2) 니체는 도덕상의 노예 폭동이 원한 자체가 창조적으로 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역전될 때 생긴다고 본다. 노예들은 상상을 통한 복수로 현실의 반작용을 보상받고자 한다. 귀족적 평가 양식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성장한다. 경멸, 멸시, 우월감이 경멸당한 상대의 모습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무력한 자가 음험한 증오와 복수를 통해서 적을 위조하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능동적인 인간은 무분별하고 행복과 행동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동적인 인간의 행복은 수동적인 것으로서, 마취, 혼미, 안정, 평화, 안식, 安臥에서 온다. 이 유형은 정직하지도, 순박하지도 않으며, 침묵하고, 자신이 당한 것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영리함을 추구한다.

니체는 원한을 지닌 인간이 먼저 나쁜 적, 악인을 마음속에서 구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것의 모상, 반대상인 선인을 생각하는 점에서 '창조적'이라고 지적한다. 즉 선과 악을 이상한 방식으로 고안하는 점에 주목한다. (10절)

cht)'과 증오의 산물인 '惡한(böse)'을 대비시킨다.(같은 책, 288-9)

고귀한 인간에게 '나쁜(schlecht)'은 '좋은(gut)'에 대해서 파생적이고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그것은 모조물, 첨가물, 補色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악한(böse)'은 그 대립항인 '선한(gut)'에 맞세우려고 고안된 것이어서 '선한(gut)'보다 앞선다. 그것은 기원적인 것(das Original)의 자리에 놓이고, 시초이고, 고유한 행위(eigentliche Tat)이다. 그래서 노예는 이런 악한 것을 부정함으로써 선한 것을 고안한다. 이처럼 도덕적 해석은 '악한(böse)'으로부터 '선한(gut)'을 창조하는 기이한 방식이다.

(귀족적 인간은 gut이란 기본개념을 자발적으로, 자기로부터 구상하고 그것으로부터 schlecht라는 표상을 만든다.
니체는 귀족적 기원을 지닌 schlecht와 증오의 산물인 böse를 대비시킨다.

schlecht	böse
모조물	기원적인 것(das Original)
첨가물	시작(Anfang)
補色	고유한 행위(die eigentliche Tat)
	(노예도덕의 사고에 고유한 행위)

그는 여기에서 schlecht가 gut에 대해서 파생적인 것인 것과는 달리. böse가 gut보다 앞선 것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세계 해석은 böse로부터 gut을 창조하는 기이한 방식에 연결된다.

귀족 도덕에서 '좋은 사람'이란 고귀하고, 강하고, 지배하는 자인데, 이는 원한이 눈에 의해서 변색되고, 의미가 바뀌고, 반대로 보인다.

두 유형을 보면, 습속, 존경, 감사, 상호감시, 동등한 자 간의 질시, 엄격하게 구속된 자들 간의 고려, 자제, 온정, 성실, 긍지, 우정에 가치를 두는 영리한 유형이 있고, 이와 달리 맹수처럼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를 추구하는 유형이 있다. [3)]

니체는 문화가 인간이 맹수를 길들여 온순하고 개화된 동물, 곧 가축으로 만든다고 본다. 이런 문화의 도구는 귀족적 종족과 그 이상을 부수고 압도하는 힘이 된 반동적 원한적 본능Reaktions-und Ressentiments Instinkte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온순한 인간, 평범하고 생기 없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목표, 정점, 역사의 의미로서 '더 높은 인간höhern Menschen'이라고 자부한다.)

원한을 지닌 인간은 어떻게 '선'을 고안하는가? (13절)

어린 양들, 온순한 동물들(온순한 자들)이 거대한 猛禽에게 원망을 품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거대한 맹금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린 양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맹금들은 악하다. 그리고 이 맹금답지 않은 것wer so wenig als möglich ein Raubvogel sein,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어린

3) 태연하게 살육, 능욕, 고문을 자행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맹수적 양심의 순진함을 지닌 금발의 야수들은 대담한 모험을 즐기고 (안전, 육체, 생명, 유쾌함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 파괴, 승리와 잔인함에 탐닉하면서 쾌락의 놀라운 명랑함에서 보듯이) 사려 없음rathumia 때문에 야만인, 나쁜 적, 고트인, 반달인의 모습을 지닌다.

양이 선한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 맹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니체는 강한 자에 대해서 그 강함을 표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위력적인 것이고자 함ein überwältigen-wollen, 제압하고자 함ein Niederwerfen wollen, 주도적이 되려 함ein Herr werden-wollen이 아니기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되며, 이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표현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어떤 크기의 힘은 그것과 같은 크기의 충동Trieb, 의지Wille, 활동Wirken을 말한다. 그것은 실제로 충동작용Treiben, 의욕함Wollen, 작용, 효과Wirken 자체이다. 여기에서 행위라는 결과, 행위 자체, 행위자는 분리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하게는 행위와 그 결과를 행위자와 분리시키고 행위의 주체가 행위자라고 상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니체는 모든 작용을 하나의 작용자ein Wirkendes, 주체Subjekt에 의해 제약된 것으로 보는 해석, 곧 언어의 유혹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우리가 언어로 화석화된 이성의 근본적 오류에 사로잡히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보자. 흔히 번개를 閃光과 분리하여 이것을 '번개'라는 주체의 활동, 작용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강함Stärke을 강한 것의 표현Äusserungen der Stärke에서 떼어내는 경우가 있다.

니체는 이런 사고방식, 언어적 관용법에 반대한다. 활동, 작용, 생성, 배후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행위자der Täter'는 상상에 의해 행위에 덧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행위가 모든 것이다das Tun ist alles. 이와 달리 하나인 행위를 둘로 쪼개서 Verdoppelung 그 원인과 결과로 나누는 것은 주체를 고안하는 방식일 뿐이다. 니체는 이처럼 언어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주체라는 악마'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양들이 선/악 개념을 고안하는 것과 연결되는가?

원한을 지닌 자가 자신의 현실적인 무력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복수와 증오의 감정으로 '약하게 되는 것이 강자의 자유이고, 어린 양이 되는 것이 맹금의 자유' 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믿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억압당하는 자는 무력하므로 복수심에 불타는 奸計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우리는 악인과 다른 자, 즉 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인이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자, 공격하지 않는 자, 보복하지 않는 자, 복수를 신에게 맡기는 자, 숨어서 조용하게 사는 자, 인생에 요구하는 것이 적은 자, 인내심이 강한 자, 겸손한 자, 공정한 자를 말한다."

이처럼 약자는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못하면서), 그런 유약함, 무능, 무기력을 자기의 좋은(선한) 점이라고 주장한다.

니체는 이런 자들이 자신의 무력감으로 화폐를 위조하고 자기기만Falschmünzerei, Selbstverlegenheit des Ohnmacht 덕분에 체념하면서도 묵묵히 기다린다는 미덕의 옷을 입고 있다고 비꼰다.

이런 유형은 자기보존, 자기 긍정의 본능에서 선택의 자유를 지닌 초연한 '주체'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상 최고의 믿음은 모든 약한 자, 억압받는 자에게 약한 것 자체를 자유로 해석하는 자기기만을 가능케 한다.